

대구시 사회지역의 변화와 특성(1)

최 석 주*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Areas in Daegu City(1)

Seok-Joo Choi*

요약 :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의 거주지를 지표로 하여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저명인사 거주지역의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이 지역에서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교통, 생활 편의 시설의 상태외에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위 교육여건이 유리한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 성곽도시, 민족적 거주지 분리, 사회지역, 저명인사, 고급주택

Abstract :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locational distribution of the eminent people show their socially and economically stabilized standing in Daegu, taking the aforesaid situation as a background of the study, and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to examine the forming process of residential areas in the city as a theoretical supporting, to put in order on classical interpretation to formation of residential areas, and general type modern residential areas formation, and economic decision factor of land us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growth and development of eminent persons' residential areas and, at the same time, extract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pattern of eminent persons' location and predict changes in the future. Furthermore, a long-term development plan of Daegu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ompleting formation of sub-centers as well as expanding metropolis areas. Recent efforts by the city government such as the ones to attract prestigious high schools in the upper city areas are also expected to bring out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ity.

Key words : Walled city, Residential differentiation, Social area, Eminent person.

1. 서론

도시생성은 거친 자연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던 삶을 청산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활용해 인위적인 모습살이를 하게 된 것을 뜻한다. 이러한 도시의 본질은 일률적으로 정량화 하기는 곤란하다. 그리고 제각기 다양한 모습의 동태적 과정으로 전개되는 현대도시의 진화 속에서 주거지의 형성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갖는다.

도시내부의 특정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다고 평가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적 자원이 반영되는 생활양식의 공간적 배치에 따라 도시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정이 허락되는 한 좋은 지역에서 살려고 한다. 왜 특별한 도시지역이 더 바람직한 곳인가 하는 것은 인종적 선호, 가옥

규모, 접근성 및 바람직한 자연환경에 대한 근접성 등과 같은 요소들과 함수관계가 있다(Willison and Schulz, 1978, 66~67).

사회적 공간에 대한 사고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적 분포를 기술하면서 시작되었다. 즉 도시의 사회지역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접근은 사회적 공간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공간은 도시 내에서 각각 모자이크 형태를 띤 주거차원의 동질공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적 지위,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선호 또는 열망이 서로 비슷한 인구집단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주거지역을 형성한다. 사회적 공간의 모자이크라 함은 도시전체로 볼 때 이질적 사회집단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화되어 독특한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지역의 한 단위로 간주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ingsj@hanmail.net)

이때 한 지역단위로서의 사회공간은 사회적 거리가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Shevky와 Bell 그리고 Williams는 도시지역을 사회적 계층(social rank, prestige value), 도시화, 격리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류하는 포괄적인 도식을 전개하고 있다. Bell은 샌프란시스코의 네 개의 센서스 구역을 선택하여 사회지역 분석법을 적용하여 접근한 바 있다. Greer는 사회 계층 및 통합의 지표는 유사하지만 도시화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를 들어 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사회지역분석법은 그 창안자들이 시사했던 것과 같이 생태학적 과정에 대한 이론 및 지식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유용성을 지닌 유형론임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사회지역이론은 정부의 통제 하에서 주거가 결정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예를 들면, 2차대전 이전의 폴란드의 수도인 바르샤바에서는 사회지역이론이 적용되었지만 사회주의국가로 변화된 1945년 이후에는 같은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형학이란 사물의 분류, 종류 또는 유형에 대한 집합이므로, 이의 발전은 과학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강력한 도구가 된다. 나아가서, 유형학의 목적중의 하나가 오늘날 대도시지역에 존재하는 근린지역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는데 있었다. 한편, 사회지역분석의 본래 목적중의 하나는 주거지역에 대한 유형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본 연구는 대구시에 거주하며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는 저명인사를 지표로 하여 사회지역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도시내의 불량 주거 또는 저소득층의 주거에 관한 기존의 고찰과 더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구시의 주거지역발달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이들 저명인사의 일반적 특성과 저명인사의 지역별, 구별, 동별 분포 특성, 도시공간구조와 저명인사의 거주지역, 저명인사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의 특성을 고찰하여 주거지역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와 같은 구조를 형성한 동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신뢰도가 높은 여러 언론기관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동아연감(1985, 1995, 2002)에 수록된 인사들을 주로 이용하고, 매 일명감도 일부 참고하였다. 동아연감에서 인명록에

수록된 인사들의 선정기준인 전·현직국회의원, 광역시·도의 국장급 및 구청장, 시장·군수 및 유명 변호사, 대학의 총장, 학·처장, 저명교수, 저명학교장, 시·군·구교육장, 시·도종합병원장, 유명병원장, 사회단체지부장, 방송국장 및 지방방송본부장, 신문사 국장급이상, 중앙은행 지역본부장 및 지방은행 간부, 농·수·축협 지회장, 예총지회장, 예술계 유명인사, 기타 저명인사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오래된 자료로는 대구읍지, 대구부읍지, 동국여지비고, 대구일반, 대구민단사, 신구대조조선전도군면리동명칭일람, 최근대구요람, 市街地の商圈 등을 이용하였다.

2. 대구시 주거지역의 발달과정

1) 조선시대

대구는 주로 금호강과 신천의 하천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지 사이의 넓은 분지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에 넓게 펼쳐진 충적평야는 분지상의 북동쪽에서 발원하여 서로 흐르는 금호강 범람원과, 남부산지에서 발원하여 분지 상을 동서로 나누며 북쪽으로 흐르는 신천범람원이 주를 이루는데 이 두 범람원은 합류한다. 그 사이에 조선시대 大邱府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과거 대구시의 주거지역은 이 성곽내의 남부로부터 성밖의 남서 구릉상까지 확장하고 있었으며 그 발전방향은 남부, 남서부, 서편 구릉군의 침식곡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곳은 현재의 남산동, 대명동, 비산동 일대에 해당된다. 일본인이 내왕하기 시작하였던 초기의 한국인은 지금의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북성로에 구축되어 있었던 성벽 내에 집중 거주하였다. 이 시기에도 최근까지 가옥구조로 보아 성내는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외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대구의 중심은 성안이었는데, 이곳은 경상감영을 핵으로 한 도심부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대구부에는 경상도나 전국의 다른 지방과 마찬가지로 17세기후반부터 양반들이 곳곳에서 동성마을을 이루고 서원·서당·누정·재실을 짓고 가문을 과시하면서 살았다. 한말까지 옷골, 배잠

등 약 60여 곳의 동성마을이 형성되어 계승되었다.

2) 일제 강점기

병자수호조약 이후 일본인들이 대구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성내에는 원주민중의 세력있는 층이 조밀하게 거주하고 있어 외래인의 성내입주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거류일본인들은 그 대부분이 별다른 재력도 없이 徒手空拳¹⁾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부득이 원주민이 별로 거주하지 않고 넓은 농토가 있던 성밖의 동부와 저습지인 북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삼덕동, 동인동, 공평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구성내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던 곳은 ‘긴골목²⁾’으로 대표되는 비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인 미로형의 가로망이 지금도 그대로 많이 잔존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인들이 신설한 거주지는 계획적 가로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이중적인 도시구조는 식민지 도시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한편, 한·일인간의 거주지역 장벽을 파괴한다는 상징적인 명분을 내세워 성벽을 철거하고, 일본인들은 이 기회에 성 내외 요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일시에 자산을 늘리게 된다. 이때부터 한국인 거주지역에 침입하기 시작한 일본인들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자 총독부에 의한 정치적 비호와 그들의 경제적 우세를 이용하여 상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구성곽내의 한국인 거주지역을 잠식하게 된다. 이에 쫓긴 한국인들은 구 교통계인 경부가도와 서문시장의 인접지 서남부의 구릉지대에 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일본인 거주지역의 핵심은 구 성곽의 동부와 대구역 부근의 범람원이었다. 당시 일본인 거주지역의 발전방향은 주로 동부 新川河畔까지 확장되어가고 있었다(達捨藏, 1936, 267~268).

이렇게 거주지역이 분리된 것은 새로 온 일본인들이 성곽동부의 광활한 농지에 신시가를 설치한데 더하여,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성벽이 철거되고 停車場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로 舊성곽내에 침입하여 당시의 일본인 거주지역을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정거장을 중심으로 일본인 상가를 형성하여 토지자본을 확장시키는 것은 일제침략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는 수원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다.

<표 1>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지역을 보면

표 1. 민족별 거주지분화(1933) (단위: %)

구분	거주지역(동)
한국인 90% 이상 거주	남산동(100), 상서동(100), 하서동(100), 계산동1가(100), 계산동2가(99), 대신동(99), 장관동(98), 달성동(98), 남성로(97), 인교동(97), 종로1가(97), 종로2가(97), 동산동(96), 수동(96), 서야동(96), 덕산동(96), 시장북로(93), 봉산동(91)
일본인 80% 이상 거주	완전동(95), 상덕동(94), 봉덕동(94), 동문동(93), 공평동(91), 동성로1가(86), 북성로1가(86), 향촌동(82), 화전동(81), 대안동(80), 동성로2가(80)

자료: 達捨藏(1936), 268; 대구시(1973), 339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는 미로형의 불규칙적인 가로망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후자는 직선의 규칙적인 가로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한옥이, 일본인 거주지역에는 적산가옥이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도시구조는 과거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패턴이기도 하다.

일본인 거주지역 중 특히 공평동은 최고급 주택지로 계획되어 도심부의 핵지대와는 도보로 5~10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이곳은 다른 거주지에 비해서 가로 폭이 넓고 고급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어 고급주택지로서 명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에 와서야 토지이용의 遷移가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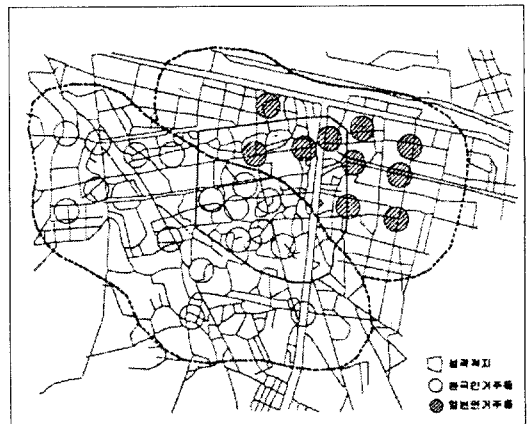


그림 1. 민족별 거주지 분화(1933)

다. 적어도 50년 간은 일본인들이 계획한 도시구조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표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분화의 원인은 <그림 1>과 같이 일본인 측이 신교통계의 철도선로에 의존하고 있는데 대하여, 조선인 측은 구교통계인 경부가도와 서문시장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지역 간에는 긴밀한 교호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식민지 도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대구부의 한국인 거주지역의 실상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대구부 도로정책 차별시설을 통격 - 조선인촌은 악취가 코를 찌러, 府會에서 激論數時間-'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大邱府會 七日인 二十구九日의 예산안 전부의 第二讀會에서 임상조, 서병철, 許智 등 三代로부터 大邱府의 현상으로 보아 신년도 예산에 계상한 종합운동장과 도로포장은 너무 사치한 시설이라 반격하였으며 그 중 임상조씨는 장시간 痛擊연설을 하여 장내를 긴장케 했다. 그들이 열렬히 주장한 요지는 남산정을 필두로 명치정, 신정, 달성정 일대의 대구의 서남부에는 도로나 하수도가 아직도 원시시대의 그것을 방불케 하여 한번 비가 내리면 곧 진흙바다로 화하여 보행이 곤란케 됨은 물론 더욱 하절의 하수구란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수천호가 준비하게 모여있는 남산정에는 도로하나 변변한 것이 없어 만일 화재의 불행이 있을 때는 소방자동차의 내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한심한 시가를 갖은 대구부에서 다액의 돈을 들여 운동장이니 아스팔트니 하는 것은 실로 기형적 시설의 모순이라 격론하고 전기 두 가지 예산에는 절대 반대를 표명하였다."

일본인 외의 외국인 거주지역을 보면, 歐美인은 주로 東山地帶에 집단거주하고 있었다. 중국인은 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며 동인·남산·봉산동 등지의 한국인 거주지대에 散在하고 있었다. 특히, 종로(센츄리호텔 부근)를 따라서 대구의 China Town 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이 집중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지금도 이 일대에는 중국 음식점이 많고, 그들의 거주지역이었음을 나타내는 華僑學校⁴⁾가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적 거주지

역 分離는 서울, 부산, 특히 인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府內에서는 1909년 간선도로의 폭을 넓혀 현재의 대구경찰서를 중심으로 십자형가로로 개수하고, 이어서 동성정(동성로) 3정목에서 남동쪽의 가로망을 정비하였다. 1924년 이후에 구읍성 외곽에 시행한 제2·3기 시가지 도로공사는 오늘날 대구시가지의 골격이 되고 있으며 당시 이들 가로를 따라서 외곽지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1937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지금의 도심부 및 동인·삼덕동에 비교적 직교식에 가까운 시가지계획을 세워 실시하였다. 그 후 여러 번의 보완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의 주거지였던, 동인·삼덕동 일대는 지금도 손을 대지 않아도 좋을 만큼 노퍽이나 상하수도의 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러나 시가지 내부에는 자연발생적인 소로가 그대로 남아 있어 보안·방화·통풍·미관상 많은 난제를 안고 있었다.

제1토지 구획정리사업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40년에 대봉, 삼덕, 동인, 칠성동 일대의 면적 853,504㎡에 대하여 시행한 것이 시초였다.

표 2.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지역명	동명	면적(㎡)	시행시기
1. 제1토지	대봉, 동인, 삼덕, 칠성동	853,504	40.8~58.9
2. 침산지구	침산동	861,874	41.3~58.9
3. 제2토지	대명, 내당, 성당, 대봉동	1,427,219	56.12~68.9
4. 제3토지	고성, 칠성, 노원동	680,380	43.3~64.4

자료: 대구직할시(1989), 324~325, 제작성

그 뒤 1941년에 공업 및 택지조성사업을 침산동 일부지역에 시행하여 대구섬유공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1943년에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을 착수하여 공업단지의 배후택지를 조성하였다.

3) 광복 이후

1945년 광복직전의 일제에 의한 건축재정에 따라 국내의 공익사업은 중단상태에 이르렀고, 이어

광복을 맞이하여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동포, 이촌향도의 큰 흐름으로 대구에도 인구유입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난이 심해지고 1가옥에 수세대가 밀집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현재의 제2차 순환선 주변인 신암·신천·비산·평리·내당동 일대와, 대구역 뒷편과 新川 건너편이나 산비탈에 전쟁피난민 등 무주택자는 대부분 판자집과 假建物인 바라크를 짓고 있었다. 당시 대구시의 미관을 해치는 바라크 등 가건물을 단속한다는 내용이 '市美化上 흉한 無許可 바라크. 이어서 허가없는 건물을 부에서 엄중처벌'이라는 보도는 그 실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⁵⁾ 그리고 미군용의 빈칸을 펴서 만든 캔지봉의 판자촌도 시내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등 주택의 양적 부족과 함께 주민의 질적 수준이 크게 하락한 슬럼가를 형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하나의 도시지역 내에서도 성장하는 지역이 있고 침체하는 지역도 있으나 이 시기에서는 침체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었다. 시가지의 확산도 인구의 팽창에 따라 더 급속화 되고 무계획, 무질서하게 뻗어 나갔다.

1950년대에도 여전히 사회적 혼란기는 계속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침체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56년 12월 제2토지(1,427,000m²)한 곳에 착수되었다. 이와 함께 전술한 1940년과 1941년에 착수한 제1토지와 침산지구는 각각 1948년에 사업이 완료되기도 하였다. 또 1960년 12월에는 제4토지(376,000m²)가 착공되었다.

4) 경제개발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평리동에 문화주택단지, 대명동에 청구주택단지, 동인동에 국민주택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는 주로 상류계층이 입주하였으며, 같은 규모의 한양철충식 가옥구조로서 신흥주택지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한옥의 개인주택 건설도 병행되었다.

이와 같이 1960년대에는 단독주택에 의한 시가지의 연속적인 팽창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대하여, 서울보다는 상당히 늦었지만 주택 보급율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1966년 대명동 공무원아파트 건설을 출발점으로 1968년 성당 시영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아파트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또 1974년과 1975년에 세워진 큰고개아파트와 동산아파트, 지금은 철거된 대봉동 한일맨션이 고급아파트의 인식을 심어주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산재적으로 황금지구, 평리내당지구, 산격지구, 복현지구, 범어지구, 달서지구 등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연속화되어 나갔다.

70년대에도 공단을 포함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발전과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 시가지의 평면적 확산이 반경 4~5km권내의 각 방향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 조성된다. 80년대 초에는 동부와 서부지역에서는 반경 5km권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도시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시가지 주변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아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심을 중심으로 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으로 확장하면서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택지대의 교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촉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30년대 이후 택지개발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0년대 초부터 급격히 공영개발사업으로 대체된다.⁶⁾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의 급격한지가상승을 유발하였고, 평면적 도시개발에 의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특히 입체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아 평면적 개발이 이루어진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외곽지 개발은 오히려 고층화 경향을 보여 조화롭지 못한 도시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건축물 시설의 지연으로 인한 기반시설투자의 효율성 저하, 환지계획에 대한 민원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⁷⁾으로 대체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택지조성을 위해 1984년 불로지구를 시작으로 하여 1987년까지 5개 지구 1,608,000m²를 시행하여 1987년에 완료하였다. 2001. 12월 현재 <표 3>, <표 4>와 같이 21개 지구 15,949,000m²를 완료하고, 7개 지구 3,227,000m²는 진행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3개지구(동서변, 동호, 명곡2) 1,635,000m²를 완료하고, 1,000,000m² 정도를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표 3. 택지개발 사업 실적(완료 지구)

시행자	지구명	면적 (천㎡)	사업비 (억원)	비고
도시개발 공사	지산, 범물, 상 인, 시지, 노변, 용산, 장기	4,498	9,803	1989~ 1999
한국토지 공사	불로, 안심, 칠 곡1·2·3, 천 내1·2, 성서, 월배	9,475	17,462	1983~ 2000
대한주택 공사	송현, 월성, 안 심2, 대곡, 명 곡1	1,976	4,038	1984~ 2001
계	21개 지구	15,949	31,303	

자료: 대구광역시(2002), 478

이것 역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간의 면적도 따라서 증가하는 일반적인 공간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계획이기도 하다.

표 4. 택지개발 사업 실적(추진중인 지구)

시행자	지구명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수용세대 (세대)	사업 기간
도시 개발 공사	동서변	893	2,739	7,518	1995.9~ 2002.3
	죽곡	695	1,787	5,000	2001.1~ 2004.12
	소계	1,588	4,526	12,518	
한국 토지 공사	동호	634	1,981	5,342	1997.8~ 2002.12
대한 주택 공사	명곡2	108	248	762	1997.5~ 2002.6
	본리	189	531	1,666	1999.6~ 2003.12
	매천	401	1,030	3,200	지정: '01.4.25
	소계	698	1,809	5,628	
(주) 동부 순환 도로	율하	307	1,192	4,168	2002.1~ 2005.8
계	7개 지구	3,227	9,508	27,656	

자료: 대구광역시(2002), 478~479

그밖에도 부족한 택지확보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나 영세민집단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지구가 갖는 도시의 전체 계획상에 대한 기여도, 비중, 역할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도시공간구조 형성에 불가결한 요인일 것이다.

3.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 특성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먼저 분석대상 지역인 대구시의 2002년 인구분포는 <표 5>에서와 같이 구별로는 가장 많은 지역이 24.0%를 차지한 달서구가 610,513명이고, 그 다음으로 수성구 448,135명, 북구 437,162명의 순이다.

표 5. 대구시의 현황

구분 지역	면적(km ²)	인구(명)	행정동수
중구	7.08(0.8)	87,611(3.5)	15
동구	182.36(20.6)	333,867(13.1)	22
서구	17.51 (2.0)	275,323(10.9)	19
남구	17.45 (2.0)	190,239 (7.5)	14
북구	95.53(10.8)	437,162(17.2)	23
수성구	76.47(8.6)	448,135(17.6)	24
달서구	62.26(7.0)	610,513(24.0)	21
달성군	427.04(48.2)	157,797(6.2)	9
합계	885.70 (100.0)	2,540,647(100)	147

* () 안은 %

인구가 적은 지역은 남구가 7.5%로서 190,239명, 달성군이 6.2%인 157,797명이며, 중구가 3.5%인 87,611명으로 가장 적다.

면적비율은 달성군이 48.2%인 427,04km²로 가장 넓고, 동구가 20.6%인 182.36km², 북구 가 95.53km², 수성구가 76.47km² 순이며, 중구가 0.8%에 해당하는 7.08km²로서 가장 좁다. 행정동이 가장 많은 구는 수성구 24개 동, 북구 23개 동, 동구 22개 동, 서구 19개 동의 순 이다. 7년 전인 1995년에 비해 수성구는 3개, 달서구는 2개의 행정동이 증가하였고,

중·동·서·남·북구에서는 2~5개 동이 감소하였다.

(1) 저명인사의 직업별 분포

저명인사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특성상 몇 가지 직업에 한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저명인사와 관련된 직업을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분석의 편의를 고려하여 <표 6>과 같이 5개 분야로 대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 6. 저명인사의 직업별 분포

직업	구분	
	수	비율(%)
학계 및 의학계	592	54.2
경제계	170	15.6
공무원 및 정계	177	16.2
법조계	60	5.5
언론 및 사회·문화계	93	8.5
합계	1,092	100.0

저명인사의 직업별 분포로 보면, 학계 및 의학계가 592명으로 54.2%를 차지하고 있다.

의학계에는 의과대학 교수와 종합병원 및 개업 의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 및 정계가 16.2%, 경제계가 15.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가 경제계보다 월등히 높은

표 7. 대구시 저명인사의 구별분포(2002)

구분 지역명	인구(A)		저명인사 (B)		B/A ×10,000
	수	비율 (%)	수	비율 (%)	
중구	87,611	3.4	77	7.1	8.8
동구	333,867	13.2	81	7.4	2.4
서구	275,323	10.9	32	2.9	1.2
남구	190,239	7.5	133	12.2	7.0
북구	437,162	17.2	89	8.2	2.0
수성구	448,135	17.6	518	47.4	11.6
달서구	610,513	26.0	139	12.7	2.3
달성군	157,797	6.2	23	2.1	1.5
합 계	2,540,647	100.0	1,092	100.0	4.3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지역의 산업집중도가 낮은 편이며, 반면에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계인사들의 분포가 많을 듯 하지만 출향 인사는 대구시 거주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 저명인사의 주택형별 분포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주택의 유형별 구분은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저명인사의 주택형별 분포

주택 년도	단독주택		집합주택	
	수	비율(%)	수	비율(%)
1995	325	43	423	57
2002	342	31	750	69

저명인사들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집합주택에 전체의 69%인 750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구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집합주택비율이 2002년의 경우 50.9%(대구시정, 2002. 12)인데 비해 저명인사의 집합주택에 대한 거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5년 이후 지난 7년 간 저명인사들의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 저명인사의 분포 특성

(1) 저명인사의 區別 분포

저명인사의 구별 분포 내용을 보면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성구에 518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며 47.4%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달서구 139명, 세 번째로는 남구에 133명이 거주하고 있다. 저명인사가 가장 적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달성군(23명), 서구(32명), 중구(77명), 동구(81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분포 비율에 따른 밀집도의 경우에도 수성구가 인구 10,000명당 11.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수성구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지산, 범물지구 외에 시지·노변·사월지구 등의 개발지역에도 저명인사들이 많이 거주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구는 8.8명으로 두 번째의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중구가 전통적인 주거지역이라는 이유와 함께 도심 소재 학교

표 9. 저명인사의 동별분포 순위

순위	구	동	수
1	수성구	범어4	50
2	수성구	고산1	41
3	수성구	지산1	40
4	수성구	수성1	37
5	남구	봉덕2	33
6	수성구	범물2	31
7	수성구	지산2	31
8	수성구	범어2	30
9	남구	봉덕3	29
10	수성구	범어1	28
11	중구	대봉1	23
12	수성구	수성4	22
13	수성구	만촌3	22
14	수성구	황금1	21
15	수성구	만촌2	19
16	수성구	고산2	19
17	달서구	상인1	19
18	수성구	만촌1	18
19	수성구	범물1	18
20	수성구	고산3	16
21	수성구	중동	16
22	동구	방촌	15
23	동구	공산	15
24	남구	대명5	14
25	달서구	송현2	13

의 이전적지에 건립된 집합주택(청운, 황실, 신세계, 한가람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저명인사의 동별 분포

저명인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은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절대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수성구 범어4동이 50명으로 1995년의 분포와 동일하다. 그 다음이 수성구 고산1동이 41명, 지산1동이 40명, 수성1가동이 37명이다. 수성구 고산1동의 경우 95년에는 동별 분포 25위 내에 들지 못하였으나 두 번째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고산1동에 속하는 범정동인 사지동, 노변

동, 신매동과 사월동 일부 지역이 이미 개발되었고, 그 나머지 지역이 곧 추가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명인사들의 거주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2002년에 경기장로와 월드컵로, 월드컵 경기장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지역의 일부는 면모가 일신되어가고 있다.

그 외 남구 봉덕2동이 33명, 수성구 범물2동, 지산2동이 각각 3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저명인사 거주지 분포의 밀집현상은 인구 10,000명당 저명인사수를 나타낸 <표 10>에서 보면, 분포밀도에 있어서는 1위는 중구 대봉1동이며 2위는

표 10. 저명인사의 동별분포 밀도

(인구 1만 명당 순위)

순위	구	동	인구수	밀도
1	중구	대봉1	7,226	31.8
2	남구	봉덕2	14,690	22.5
3	수성구	범어4	22,462	22.3
4	수성구	수성1가	19,415	19.1
5	수성구	황금1	11,452	18.3
6	수성구	범어1	17,217	16.3
7	남구	봉덕3	20,068	14.5
8	수성구	범물2	22,031	14.1
9	중구	삼덕	5,888	13.6
10	수성구	범어2	12,783	13.5
11	수성구	수성4가	16,647	13.2
12	수성구	만촌2	14,341	13.2
13	수성구	지산1	30,706	13.0
14	남구	대명5	10,856	12.9
15	수성구	고산1	35,065	11.7
16	수성구	지산2	28,104	11.0
17	수성구	만촌3	20,778	10.6
18	수성구	범어3	11,472	10.5
19	수성구	만촌1	17,423	10.3
20	중구	남산3	7,875	10.2
21	수성구	중동	16,299	9.8
22	수성구	범물1	18,991	9.5
23	동구	공산	17,735	8.4
24	수성구	두산동	10,664	8.4
25	수성구	황금2	14,977	8.0

대구시 사회지역의 변화와 특성(1)

남구 봉덕2동 등이다. 3위에서 6위까지는 수성구 범어4동, 수성1가, 황금1동, 범어1동이 차지하고 있다.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동별 분포밀도가 상위 11위까지는 같은 동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이들 두 가지 지표에서 본 순위는 큰 차이가 없다.

표 11. 저명인사 밀집동(상위25개동)의 區別 분포

구분	동	동수
중구	대봉1, 삼덕, 남산3	3
동구	공산	1
서구	.	0
남구	봉덕2, 봉덕3, 대명5,	3
북구	.	0
수성구	범어4, 수성1가, 황금1, 범어1, 범물2, 범어2, 수성4가, 만촌2, 지산1, 고산1, 지산2, 만촌3, 범어3, 만촌1, 중동, 범물1, 두산, 황금2	18
달서구	.	0
달성군	.	0

이러한 분석결과를 저명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가설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저명인사 밀집순위 상위 25개동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성구 18개동, 중구와 남구가 각각 3개동이다. 그밖에 동구가 1개동이다. 상위 25개동에 포함된 동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 구로는 서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이 있다. 이와 같이 저명인사의 거주분포가 구

표 12. 저명인사가 희소한 지역 (2인 이하 거주 동)

구분	저명인사가 희소한 동	동수
중구	동인1	9
동구	동촌, 안심4	16
서구	내당2, 비산2, 비산6, 평리5, 평리6, 원대	3
남구	.	2
북구	노원1, 노원2, 노원3, 복현1, 검단, 무태, 칠곡2	11
수성구	고산3	1
달서구	죽전,	5
달성군	하빈면, 구지면	

별로도 매우 불균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명인사수 2인 이하의 동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은 북구의 노원1, 2동과 같이 공업지대로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와, 중구의 도심에 인접하여 인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동·수성구의 그린벨트에 해당된 지역과 전통적인 자연부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북·달서구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초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택지 개발사업으로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형성된 지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저명인사 분포의 변화

(1) 1985년의 분포특성

1985년의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은 수성구와 남구이며,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는 지역은 중구였다.

이 당시 저명인사의 분포특성을 살펴보면, 역시 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인 중구와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중 수성구와 남구에 밀집되어 있다. 특히 1974년의 재정비 계획부터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면서 수성동과 만촌동, 대명동의 일부지역에 집단적으로 지정·운영되어온 주거전용지역은 도시구조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주거지역이 세분된 이유는 종래까지 주거지역 내에는 소규모 가내공장, 요리점,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이를 제한하고자 주거전용지역이 지정된 것이다.

준주거지역·주거지역은 최소대지면적이 27평인데 비해 주거전용지역의 최소대지면적은 60평이다. 최소대지면적이 비교적 넓게 규정되고 건축밀도가 낮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이들 주거전용지역은 부유계층의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대구의 신흥고급주택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이는 도시계획이라는 제도가 사회적 계층의 공간적 분화를 일으켜 교육시설의 과밀,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도시구조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만촌동의 주거전용지역에는 교수촌이 형성되어 학계인사의 집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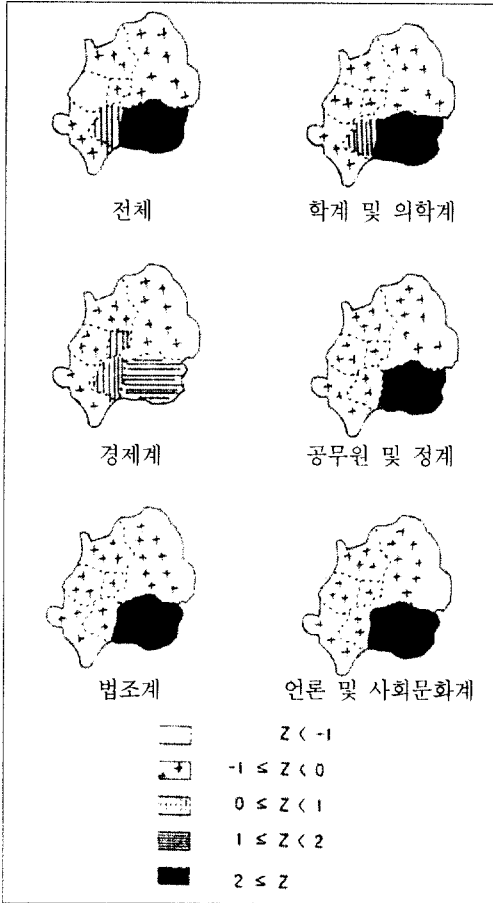


그림 2.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 분포(1995)

고 있다.

(2) 1995년의 분포특성

표준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1995년의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는 <표 13>과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95년의 경우, 저명인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은 수성구(2.26)이며, 남구(0.44)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1985년에 비해 1995년은 수성구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수성구에 지산지구, 범물지구, 시지지구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영택지의 개발 외에도 개별주택회사가 요지에 해당하는 곳을 매입하여 건립한 지역(범어동의 가든 하이츠, 장원아파트 등)과 주거불량지역을 재개발하여 건립한 지역(범어동의 궁전아파트 등)도 저명인사의 밀집분포현상을 유발하였다.

또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라 건립된 고급 아파트 지역(오성중고 이전지의 오성아파트, 코오롱대구공장 이전지의 수성 보성아파트, 수성쌍용아파트, 수성화성아파트 등)의 영향도 크다.

(3) 2002년의 분포 특성

2002년의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은 <표 14>와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성구(2.56)이며, 비교적 높은

표 13.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표준점수(1995)

직업 구	학계 의학계		경제계		공무원 및 정계		법조계		언론 및 사회 문화계		전체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중구	42	-0.21	20	0.22	9	-0.49	10	-0.12	10	-0.11	91	-0.15
동구	16	-0.72	3	-0.63	12	-0.25	0	-0.65	7	-0.36	38	-0.66
서구	13	-0.78	5	-0.53	5	-0.80	0	-0.65	1	-0.87	24	-1.01
남구	84	0.62	30	0.73	14	-0.10	14	0.09	11	-0.02	153	0.44
북구	21	-0.62	4	-0.58	7	-0.64	2	-0.54	3	-0.70	37	-0.67
수성구	164	2.20	38	1.13	46	2.37	57	2.37	39	2.35	344	2.26
달서구	27	-0.50	9	-0.33	14	-0.10	3	-0.49	8	-0.28	61	-0.44
계	367	.	109	.	107	.	86	.	79	.	746	.
평균	52.4	.	15.6	.	15.3	.	12.3	.	11.3	.	106.9	.
σx	50.8	.	19.9	.	12.9	.	18.9	.	11.8	.	10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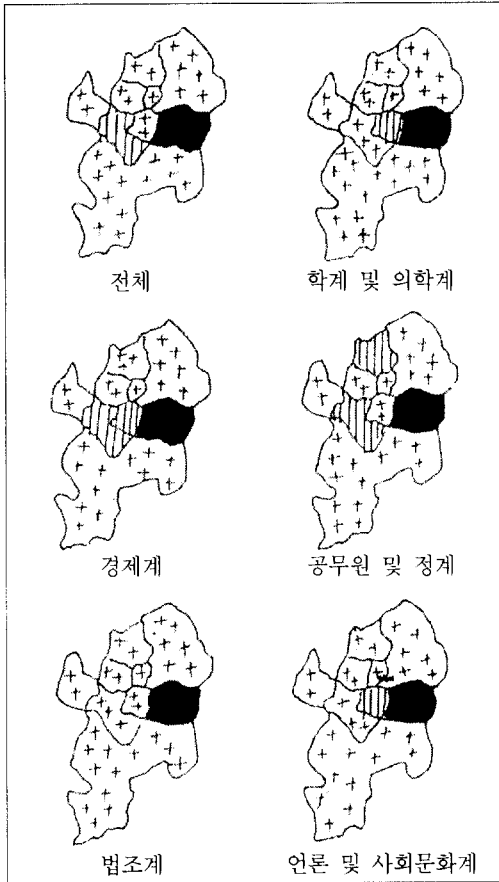


그림 3.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 분포(2002)

분포를 보이는 지역은 달서구(0.02)이다.

<표 13>과 <표 14>를 비교해 보면 1995년에 비해 2002년은 수성구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어, 1995년의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좀 더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수성구에서도 고산지역의 사월지구가 추가 개발되고, 또 다른 공공용지의 이전적지(구 군의학교, 구 덕원고교, 구 황금아파트, 구 만촌 AID아파트 등)의 신규 아파트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역의 인문환경 가운데는 그 중요한 요소로서 교통, 생활편익시설의 상태, 이웃주민의 수준, CBD와의 거리, 교육시설, 근린주구내 주택의 상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대구시의 경우 주거입지결정인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군이 저명인사의 분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지역 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 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 그 지역의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도심권의 확대, 부도심과 지역 중심의 형성이 완료되고, 근래 강북지역의 명문고교 유치 노력 등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기

표 14. 대구시 거주 저명인사의 표준점수(2002)

직업 구	학계 의학계		경제계		공무원 및 정계		법조계		언론 및 사회 문화계		전체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빈도	표준점수
중구	37	-0.42	18	-0.16	8	-0.85	4	-0.22	10	-0.15	77	-0.40
동구	38	-0.41	10	-0.54	20	-0.13	2	-0.35	11	-0.05	81	-0.37
서구	12	-0.71	8	-0.63	10	-0.73	0	-0.47	1	-0.96	31	-0.71
남구	78	0.05	25	0.18	14	-0.49	5	-0.16	12	0.04	134	-0.02
북구	52	-0.25	6	-0.73	25	0.17	0	-0.47	7	-0.42	90	-0.31
수성구	296	2.55	73	2.45	61	2.34	49	2.63	39	2.49	518	2.56
달서구	72	-0.02	26	0.22	31	0.54	0	-0.47	10	-0.15	139	0.02
달성군	7	-0.77	4	-0.82	8	-0.85	0	-0.47	3	-0.78	22	-0.77
계	592		170		177		60		93		1.92	
평균	74.0		21.3		22.1		7.5		11.6		136.5	
σx	87.2		21.1		16.6		15.8		11.0		149.4	

대하게 한다.

4. 결론

조선시대 축성이후 대구의 중심은 성안이었는데 이곳은 경상감영을 핵으로 하는 도심부였다. 과거 대구시의 주거지역은 구성벽내에서 남부로부터 서남구릉상까지 확장하고 있었으며 그 발전의 방향은 남부, 서남부, 서편의 구릉군 중 침식곡을 향하고 있었다. 이곳은 현재의 남산동, 대명동, 비산동 일대에 해당된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 성밖 곳곳에서 양반들의 옷골, 배잡 등의 동성마을이 형성 계승되었다. 일본인이 내왕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한국인은 구성벽 내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 이 시기에도 최근까지 가옥구조로 보아 성내는 부유층이 거주하고 있었고 성외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거주지역을 보면 전자는 미로형의 불규칙적인 가로망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며, 후자는 직선의 규칙적인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한국인 거주지역에는 한옥이, 일본인 거주지역에는 적산가옥이 현재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 과거를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도시구조는 과거의 思考와 계획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패턴이기도 하다.

1945년 이후 광복을 맞이하여 해외동포의 귀환과 북한으로부터의 월남동포, 이촌향도의 큰흐름으로 대구에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주택난이 심해지고 1가옥에 수세대가 밀집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현재의 제2차 순환선 주변인 신암·신천·비산·평리·내당동 일대와, 대구역 뒷편과 新川 건너편이나 산비탈에 전쟁피난민 등 무주택자는 대부분 판자집과 假建物인 바라크를 지어 불량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여러 곳에 주택단지가 건설되었고, 당시에는 주로 상류계층이 입주하였으며, 같은 규모의 한양절충식 가옥구조로서 新興住宅地를 형성하였다. 동시에 한옥의 개인주택 건설도 병행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토지 구획정리지구에 산재적으로 황금지구 등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어 이를 중

심으로 시가지가 연속화 되어 나갔다.

1980년대에는 자료활용이 가능한 저명인사를 지표로 하여 분포특성을 통해 사회계층 분화를 분석하였다. 저명인사는 도심의 전통적인 주거지역과 더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일부에 밀집되어 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정된 주거전용지역에 부유계층의 주거집단을 형성하면서 대구의 신형 고급주택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

1990년대의 저명인사의 분포특성은 수성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남구, 중구의 순이다. 또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인구 1만명당 동별 분포 밀도가 상위 6위까지 모두 같은 동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두가지 순위는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저명인사들이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1985년과 1995년의 변화특성은 저명인사의 기존 밀집지역인 중구와 남구는 감소하고, 수성구에 현저한 증가를 보인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에 꾸준히 추진된 택지개발과 학교 등 공공용지의 이전에 따른 고급아파트 지역의 형성의 영향이 크며, 생활여건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2002년의 저명인사의 분포특성은 수성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그 다음이 달서구, 남구의 순이다. 또 저명인사의 동별 절대수와 인구 1만 명당 동별 분포 밀도가 상위 11위까지는 같은 동들이(범어4, 수성1가, 봉덕2, 범물2, 범어2, 봉덕3, 범어1, 대봉1)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의 두 가지 순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명인사들이 역시 특정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995년과 2002년의 변화특성을 보면 수성구가 타 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어 1995년의 현상이 유지되고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저명인사들이 역시 특정지역에 계속해서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교통, 생활편익시설의 상태 외에 주거입지 결정인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학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저명인사가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은 공업지대로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경우와, 도심에

인접하여 인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또한 그린벨트에 해당된 지역과 전통적인 자연부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초기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택지 개발사업으로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형성된 지역이다.

저명인사 밀집지역 중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와 시가지의 외곽 확대, 전원주택의 선호 경향 등 그 지역의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저명인사의 밀집현상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서 대구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도심권의 확대, 부도심과 지역 중심의 형성이 완료되고, 근래 강북지역의 명문고교 유치 노력 등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균형을 이룬 도시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註

- 1) 1910년말 대구에 거주한 일본인의 원거주지를 보면, 47개 부·현에서 來住하여 거의 全國的인 分布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곳이 福岡이며 東京이나 京都같은 대도시 주민보다는 소도시, 그 중에서도 향구나 도서 주민이 많다. 그것은 일정한 생업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생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대구 토박이들은 '진골목'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진골목'은 중앙로 주택은행 지역본부 북쪽 옆에서 좁은 골목을 따라서 舊正소아과 의원을 거쳐 종로 대남한의원 앞까지 비스듬하게 뚫린 골목을 말한다. 이 외에도 壯觀洞골목(舊상서여중고 南便), 射一洞, 南一洞(로얄호텔의 南西쪽 골목), 壽洞골목(금호호텔 東便), 桂山洞골목(동아쇼핑 北西便) 등이 이 예에 속한다.
- 3) 東亞日報, 1935. 3. 30(5).
- 4) 華僑小學校(대구시 중구 종로 2가 31번지 소재, 설립일 1943. 2. 21)
- 5) 남산경제신문, 1946. 6. 15(3).
- 6)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택지개발과 관련된 최초의 법령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1941년 6월 14일 제령 제23호 조선주택영단령에 의한 조선 주택영단이 설립되어(同年 7. 1) 공공택지 개발기관으로서 전국 각지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대구에서도 부가 택지조성을 하고 있던 東雲 1·2區(현 동인동)와 南山 1區의 13,000餘坪(동운 5,412평, 남산 7,599평)을 영단이 매입하였다. 공원 및 노무자 舍宅建設도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있었는데, 대구는 七星町(현 칠성동의 시민운동장 인근)의 6평형 연립주택(100호)이 조선운수노무자 사택이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 보건후생부 주택국의 감독하에 옮겨졌다가 정부수립과 동시에 중앙관재처의 관할하에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大韓住宅營團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기존주택을 관리하고 피난민구호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택지를 개발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5·16이후 조선주택영단 등 舊法整理의 하나로 1962년 7월 1일 건설부 관할의 대한주택공사가 설립되어 주택에 대한 공공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주택건설과 함께 택지개발을 시행해 왔다.

- 7) 대표적인 공영개발사업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리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및 국민주택용 대지조성사업 등이 있다.

文獻

- 강보철, 1967, 조선시대 도읍의 형성과정, 도시문제, 2, 58-72.
- 김인수, 1993, 대구시 거주지역의 분화,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흥구·금기반, 1991, 서울시 거주자의 입지분포 특성 및 이동패턴 분석연구, 국토계획, 26(2), 95-123.
- 이기석, 1980,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재, 서울, 127-171.
- 田井養通, 1984, 廣島市における住宅團地の形成とその居住地域構造, 人文地理, 27(6), 60-88.
- 정승일·박양춘, 1989, 대구의 주거지역분화에 관한 연구, 창과 이태영 총장 회갑 기념논총, 617-635.
- 조명래, 2002, 현대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서울.
- 최석주, 1994, 대구시 도시계획의 지리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석주, 1996, 大邱市 都心部の 街路網 變化, 대한지리학회지, 31(3), 593-612.
- 최석주, 1997, 대구시의 사회지역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2), 209-225.
- 최원희, 1995, 인천시의 주거지역분화와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과 지리교육, 15, 44-71.
- 홍두승, 1983, 직업분석을 통한 계층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3), 69-87.
- Elgie, R. A., 1986, The segregation of socioeconomic groups in urban areas: A comment, *Urban Studies*, 16, 190-199.
- Harris, R., 1984, Residential segregation and

class formation in the capitalist ci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 26-49.
Knox, P., 1995, *Urban Social Geography*, 3rd ed., Longman, London.
Massey, D. S., 1987, Social class and ethnic

segregation: A consideration of methods and conclu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641-650.

(접수 : 2003. 5. 28, 채택 : 2003. 7. 24)